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Part _ 8



문화유산(文化遺産) 어떻게 볼 것인가?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

I. 문화유산의 이해

1. 문화재와 문화유산

1)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제2조

- 경제적가치(재화)가 붙여짐, 오래된 물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우리역사에서 만들어진 귀중한 것들
-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적 소산으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 등의 사적지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또는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옥 등으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2) 문화유산(Heritages)

-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현재 그것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미래의 세대에게 전승하는 것
-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기 전의 자연과 인류의 문화 행위의 산물(1972년 11월, 유네스코)



그림 1 |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후원

① 종류 : 문화유산(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

②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전세계 회원국 163개국이 보유한 1,031점(2016년 6월 현재)의 유산으로 문화유산 802건, 자연유산 197건, 복합유산 32건임.

③ 한국의 세계유산과 등재잠재목록

· 세계유산 12건, 잠재목록 15건

구분	유형	등재연도	명칭	
세계유산	문화유산	1995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종묘	
		1995	불국사 석굴암	
		1997	창덕궁	
		1997	수원화성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2009	조선왕릉	
		2010	하회·양동 역사마을	
		2014	남한산성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자연유산	2007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잠재목록	문화유산	1994	장진 도요지	
		2010	중부내륙산성군	
		2010	대곡천 암각화군	
		2010	염전	
		2011	외암마을	
		2011	낙안읍성	
		2011	한국의 서원	
		2012	서울 한양도성	
		2013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2013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2013	한국의 전통산사	
	자연유산		1994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2002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2010	서남해안 갯벌	
		2011	창녕 우포늪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산이 가진 고유의 진정성(Authenticity)¹⁾ 과 주변환경을 포함한 제반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Integrity)²⁾을 중요시하며 동시에 탁월 보편적 가치를 지녀 전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 나가야할 가치가 있어야 함.

2. 문화유산의 속성

- 1) 3간(間)의 결과물 - 시간, 공간, 인간
- 2)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가
- 3) 옛날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4)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 5) 빛나는 역사만을 찾을 것인가



그림 2 | 경복궁 자경전 골돌 담장

3. 문화유산을 보는 눈

- 1)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관심의 유발
 - 형상을 보기(보는단계-See) → 형상의 밖을 보기(만든사람, 사용방법, 만든방법, 만든장소, 형태나 무늬의 의미 또는 상징, 읽는단계-Look at)
- 2)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

1) 본적으로 유산이 지닌 형태와 특성이 원래 만들어질 때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것.

2) 유산의 지닌 본연의 가치과 주변 환경의 개발 또는 방만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4. 문화재의 활용

- 1) 개념 - 문화재가 지닌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피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



그림 3 | 1900년대 경복궁 광화문

2) 활용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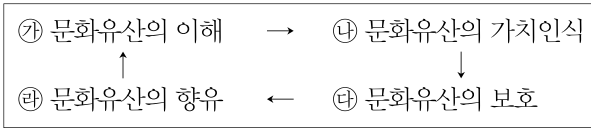
-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보존이 전제된다는 의미로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 개념’
- 생산(조사 · 발굴 · 연구) → 보존(복원 · 보존 · 관리) → 활용

3) 활용의 전제요건

- ① 보존(preservation) - 물려받은 물리적 상태를 유지
- ② 복원(restoration) - 형태적 변화를 물리적 방법으로 이전상태로 되돌리는 것
- ③ 재조립(reconstitution) - 유적의 보존을 위해 원래의 장소나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유적을 조립하는 것(예, 문화단지)
- ④ 전용(adaptive reuse) -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외부를 보존하면서 내부를 새롭게 사용하는 것
- ⑤ 재건축(reconstruction) - 없어진 유적을 원래의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
- ⑥ 복제(replication) - 남아 있는 유적, 유물을 다시 만드는 것

4) 활용

- ① 활용의 유형과 범주 - 산업회(복원, 보전), 교육화, 관광화, 상품화
- ② 문화재 교육



- ※ ①② - 이론 및 답사(어린이 박물관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의 운영)
- ※ ③④ - 실제제작 및 현장활동의 참여 (각종 체험 및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

II. 문화유산의 유실과 도난

1. 문화재 훼손의 원인

1) 자연적 훼손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훼손, 습기(빗물), 동결 융해 등의 팽창작용, 환경오염, 태풍

2) 생물학적 훼손

- 병충해, 곤충, 세균에 의한 미생물번식 (서책), 이끼, 넝쿨식물, 나무의 뿌리

3) 인위적 훼손

- ① 방화, 산불 등의 화재
- ② 종교적 문제로 인한 파괴



그림 4 | 원각사지 10층석탑 보존각

- ③ 전쟁, 도굴로 인한 파괴
- ④ 잘못된 수리복원
- ⑤ 일반인들의 낙서 및 물질투척

2. 문화유산의 파괴자(문화재범죄)

1) 범죄의 종류

- ① 문화재사범의 개념
 - 광의 - 문화재보호법의 형사벌칙 조항에 규율되는 것 뿐 아니라 형법상 절도, 장물 취득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일체의 범죄
 - 협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의 무허가 국외반출, 손상, 은닉, 도굴 등이며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정지역에서 무단으로 하는 동식물의 포획행위 및 광물 채취행위
- ② 문화재사범의 종류
 - 문화재 절도(도난시 회수율 6.7%)
 - 매장문화재의 도굴
 - 위조
 - 밀거래 - 국내, 국외

2) 문화재 범죄의 원인

- ① 관심과 소장욕구의 증가
- ② 문화재에 대한 인식변화(재화적 가치로 인식)

3) 문화재 범죄의 죄와 보상(문화재보호법)

① 형벌

- 무허가 수출의 죄(80조-2년 또는 3년형), 매장문화재 문화재 손상 및 은닉의 죄(81조-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도굴의 죄(82조-5년 이상 및 몰수), 문화재의 무허가 반출 및 무허가 현상변경(89조-5년 이하), 지표조사거부 및 방해(제89조-3년 이하), 무허가발굴(82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② 포상 및 표창

- 포상 - 문화보호법에 의한 무허가수출, 허위지정 유도죄, 손상 및 은닉의 죄, 도굴 등을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최대 2,000만원이하, 최초 1만원 이상)
- 표창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를 신고한 자, 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있어 모범이 된 자.

4) 개선방안

① 올바른 문화유산의 교육

- #### ② 선의취득제도의 문제개선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 #### ③ 문화재 소장처에 대한 관리와 개선(보관금고나 전시관들을 건립, CCTV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④ 전담 단속반의 운영

Ⅲ. 해외반출문화재의 문제

1. 국외반출 문화재의 현황

(2015년 6월 현재, 국외소장문화재단 자료)

지역	국가	수량	주요보관처	비고
아시아	일본	67,708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8,278	요녕성박물관	
	대만	2,881	국립고궁박물관	
	기타	1,024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아메리카	미국	43,601	프리어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캐나다	2,192	로얄온타리오박물관	
유럽	영국	7,964	대영박물관	
	독일	10,727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러시아	4,067	동양예술박물관	
	프랑스	2,896	기메동양박물관	
	기타	2,789	덴마크 국립박물관 외	
오세아니아	호주	55	뉴사우스 웨일즈박물관	
합계		154,182		

2. 반출경위

1) 전쟁에 의한 약탈

- 러말선초 왜구의 침입, 임진왜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2) 한일강제합병을 전후한 시기의 강제수탈

- 고려시대 고분의 도굴, 석조물의 집단 약탈

① 개인에 의한 수탈 (경천사지 석탑, 오쿠라컬렉션)

② 관에 의한 수탈 (세키노의 조사이후, 이천향교방 석탑, 울리사지 석탑, 오대산사고보 왕조실록 등) ※실록은 2006년 7월 47책 반환

3) 기여 및 구입

- ① 기여 - 고려불화 및 조선불화의 일부
- ② 구입 - 하버드 소장 아미타삼존, 직지 등

3. 반환 사례와 향후의 대응방안

- 환수 1,660점, 기증 3,435점, 구입 4건, 반환1건(왕조실록)

1) 반환사례

- ① 한일기본협정 체결
 - 1,432점의 유물 반환
- ② 영친왕비 복식
 - 1990년 노태우 방일시 합의,
1991년 10월 반환



그림 5 | 1963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 (총227점-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③ 북관대첩비(1708년) - 러일전쟁시 전승물로 약탈, 2005년 10월 20일→2006년 3월 1일 북한에 인도
- ④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 1913년 일본동경제국대학으로 불법반출(목적 연구조사),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 2006년 3월 “조선왕조 실록환수추진위원회” 출범, 2006년 7월 14일 반환
 - 의의 : 민간차원의 환수라는 점. 왜곡된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정립

2) 문제점과 대응방안

- ① 재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

- 유물범죄의 표적으로 노출, 또 다른 범죄를 용인하는 왜곡현상
초래(도굴꾼에 의한 국내반입과 장물의 취득)

② 명분과 실리에서 무엇을 취한 것인가

-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는 실리외교가 중요(조건부 반환, 영구
혹은 장기대여, 교류전시 등 다양한 방법의 이용) 예, 2005년
독일의 성 베네딕토회 오티리엔 수도원 소장의 정선 그림
21점의 반환 → 영구대여

- 이우치 이사오의 와전기증(1,082점), 가네코 가즈시게의
유물기증 (1,035점) 등

③ 국내의 외국유물에 대한 인식

- 오타니 (大谷) 컬렉션

④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전시

- 유수박물관의 한국실 운영

예) 오사카 동양도자박물관,

이병창이 기증한 350여점의 도자기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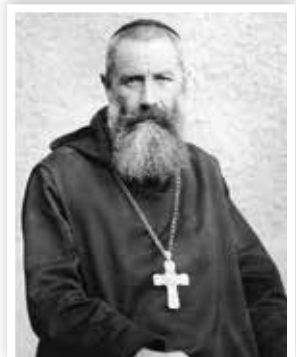


그림 6 | 베네딕도 선교회 배버신부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Part _ 9



창원 다호리 유적의 재해석



임학종

(국립김해박물관장)

01. 들어가며

해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곳. 풍성한 갈대밭을 끼고 있는 곳.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일대는 아주 낭만적이다. 인근 산기슭과 논바닥이 바로 유명한 다호리 유적이다. 1988년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붓과 2000년 전의 생생한 모습을 간직한 통나무 관(棺), 각종 옷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연일 최고,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제32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후 2012년까지 모두 열 한 차례에 걸쳐 이 유적을 발굴조사 하였다. 유기질 유물이 많아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사 후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을 기한다고 하여도 발굴행위는 유적의 파괴이다. 따라서 우리는 발굴을 신중히 하고, 그 기록에 최선을 다한다. 기록하지 않는다면 단지 추억이고 기억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호리 유적 발굴이 우리만의 기억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근 서른 해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들을 기록하고 정리했다. 조사 당시 도굴로 파헤쳐진 구덩이들로 인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지만, 도굴꾼들의 무지스런 약탈에도 불구하고 전대미문의 발굴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이와 같은 발굴성과를 올리게 된 데에는, 습지라고 불리는 완벽한 유기물 저장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이며 기후조절, 오염원의 정화, 아름다운 경관 등 생물학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개발과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다. 습지는 물과 흙이 뒤섞여 밀폐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유물이 잘 훼손되지 않는다. 다호리 유적도 습지에 조성된 덕분에 이 시대 문화상의 내용이 보다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다호리 사람들은 습지에 무성한 갈대와 초본식물류 등으로 바구니를 만들고, 습지의 자연환경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습지의 자연이 내준 물질을 통하여 왜(倭), 예(濊), 한(漢), 낙랑(樂浪)등과 교류하였다. 풍부한 철을 매개로 하였다.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이러한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다호리 수장층의 권력이 신장되었다.

02. 갈대밭 속의 나라, 다호리

가. 세상을 바꾼 철

고대사회에서 철은 돌이나 청동보다 단단하고 예리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무기, 공구, 일상생활 도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연장을 만들 수 있는 순수한 철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원료들과 섞인 철광석을 녹여 철을 뽑아내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였다. 중국 한대(漢代)에는 국가가 직접 제철기술을 통제하였으며, 철제 농공구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그만큼 제철기술과 철은 고대사회에서 중요한 기술이자 신소재였다. 한편 철제 무기는 주변지역을 정복하여 차츰 고대국가체제를 이루는 동인(動因)이 되었고 철제 농공구는 생산력 증대와 부의 축적을 가져왔다.

※ 갑자기 완성된 철기

- 현지 생산 • 무구 • 농어구 • 목공구 • 마구

나. 변한지배층의 고급문화, 칠기

옷칠은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지만 방부(防腐), 방수(防銹), 방습(防濕), 내열(耐熱), 방수(防水), 접착(接着)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원료인 옷나무 재배지가 한정되고, 까다롭고 복잡한 제작과정 때문에 전문 집단만이 칠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칠제품은 일반인보다는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호리 유적에서는 합, 통과 같은 용기류를 중심으로 무기류, 공구류를 비롯하여 붓, 부채 자루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옷칠이 사용되었다.

다. 새로운 토기제작기술의 등장과 발전

다호리 유적의 조영이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영남지방에서는 새로운 토기가 등장한다. 와질토기라 불리는 것인데, 재지(在地)의 무문토기의 제작전통 위에 새로운 토기제작 기술이 더해져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독창적인 토기를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 분묘 유적에서 발견된다. 토기의 질은 무른 편이지만

이전 무문토기와는 소성상태와 색조 등이 전혀 다르다. 무문토기는 산화염으로 소성되어 적갈색 혹은 황갈색이 기본 색조인데 반해 와질토기는 환원염 소성이어서 회황색이나 짙은 회색이 기본 색조를 이룬다. 변진한사회에서 와질토기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한식(漢式)토기(낙랑토기 포함)의 영향으로 보는 입장과 전국(戰國)토기의 영향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낙랑군설치 이전으로 보는 견해와 낙랑군설치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와질토기

- 기원전 1세기 전후하여 무문토기 제작 전통 위에 새로운 토기제작기술이 더해져 영남지방에 발생한 독창적인 토기
- 토기의 질은 무른 편, 이전 무문토기와는 소성상태와 색조 등이 다름
- 무문토기 : 산화염으로 소성되어 적갈색 혹은 황갈색이 기본색조
- 와질토기 : 환원염 소성, 회황색이나 짙은 회색이 기본색조

라. 지배자의 무덤

다호리 1호 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나무관이 확인되었다. 통나무관은 수령 335년의 굵은 참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길이 240cm이다. 하관하기 전에 무덤 바닥에 타원형의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각종 유물이 든 바구니를 넣었다. 1호 부장 구덩이에서 확인된 바구니는 길이 60cm, 너비 55cm, 높이 12cm 가량이며 각종 부장품을 바구니에 넣은 후 끈으로 묶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또 1호 묘에서는 철기, 청동기, 거울, 화폐 등 다량의 위신재가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변한의 지배세력은 철의 생산과 통제, 철을 매개로 한 교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지배 권력을 유지·확대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다호리 무덤은 이런 변한사회의 지배계층의 집단묘지로 그 중 1호 묘의 피장자는 변한의 지배자로 볼 수 있다.

한편 다호리 1호 묘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철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해서 당시의 철 문화 수준을 기늠할 수 있다. 특히 철기 붓, 철기 부채자루, 철기 칼집 등은 당시 중국의 철기와는 달라 변한지역의 철기문화가 독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로는 칼·꺾창·창 등의 무기류와 도끼·자귀 등의 공구류, 그리고 따비·낫 등의 농기구류가 확인되었다. 무기와 공구뿐만 아니라 농기구까지 철기로 제작되었다는 점은 철의 생산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호 묘에서 확인된 붓과 손칼은 변한사회에서 이미 문자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호리 1호 묘에서 발견된 한경(漢鏡)이나 오수전(五銖錢) 같은 한계(漢系) 유물은 문헌에서 확인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삼국시대의 변한이 낙랑군 또는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문헌에 나타난 변한사회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혼인하는 예법은 남녀의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례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韓), 예(濊), 왜인(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또 낙랑(樂浪)과 대방(帶方) 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

03. 다호리 유적의 발굴 의의와 성과

가. 원삼국시대 초기 목관묘의 실체와 장제

나. 신분 파악

다. 청 생산과 국제무역

라. 문자와 도량형

마. 칠공문화

바. 전기와질토기의 세부 편년

사. 고대국가의 분화

이처럼 2000여 년을 지나 우리를 다시 만난 변한 지배자 집단의 묘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삶은 사회 모든 분야가 초보적 수준일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막대한 철과 철기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를

매개로 주변 나라들과 활발한 교역을 행하던 국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변한사회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을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04. 다호리 유적의 한계

- ※ 주남저수지 일대는 바다였다? → 갈대밭 속의 나라
- ※ 이 묘의 주인공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 ※ 옷 농장, 칠기와 철기의 공방은 어디일까요?
- ※ 성채는 어디이며, 둥글까요? 네모일까요?
- ※ 목책일까요? 토성일까요?
- ※ 도로와 감옥은 없었을까요?
- ※ 선착장과 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구산동 232번지)

Tel_ 055) 320-6800 Fax_ 055) 325-9334

홈페이지_ gimhae.museum.go.kr

발행일 : 2016년 8월

편집디자인 : 핸드즈디자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40번길 6 (1층)

Tel_ 070) 7380-0641 Fax_ 0303) 3130-0621

인쇄처 : 리드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Tel_ 02)3667-4945 Fax_ 02)3667-4942
